

“친구도, 가족도 모두 나를 떠나갔습니다.”

- **이제는 변하고 싶다는 알콜중독자 최진수(가명)님의 이야기** -

최진수(가명)님은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계모와 함께 살며 가족의 따뜻한 온정을 느끼지 못하며 자랐습니다.

장성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 몇 번의 결혼 실패 끝에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. 거듭되는 이혼의 상처로 매일을 술로 보냈고 결국 직장 생활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. 술로 친구도 가족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.

돈도 친구도 가족도 잃고 우울증까지 앓게 된 최진수님은 술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고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 몸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.

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. 알콜중독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.

절망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최진수님의 결심을 응원해 주세요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최진수님의 재활비로 지원되며
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장년들의
재활 지원 사업비로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